안방극장 '청춘스타 3인방' 주목



'청춘스타'가 탄생했다. 최근 tvN '빈센조'의 곽동연, KBS 2TV '달이 뜨는 강' 나인우, SBS '펜트하우스2'의 김영대(왼쪽부터)가 각기 다른 개성을 드러내면서 시청자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 사진제공 | tvN·KBS·SBS

비굴해도…대타여도…막장이지만 빛난다

〈'빈센조' 장한서 역〉 〈'달이 뜨는 강' 온달 역〉 〈'펜트하우스2' 주석훈 역〉

곽동연, '빈센조' 광기어린 악덕 회장
나인우 '달이 뜨는 강' 대타로 눈도장
김영대 '펜트하우스' 시즌2 복수의 칼

'신성'들이 떴다.

곽동연(24)·나인우(27)·김영대(25)가 안방극장 화제작에서 돋보이는 존재감을 드러내며 '스타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20대 초중반인 이들의 활약에 한동안 청춘스타를 찾지 못했던 방송가의 기대감도 점차 높아가고 있다. 시청자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들을 안방극장의 차기 주역으로 점치는 시선이 잇따르고 있다.

●곽동연…반전의 '히든 카드'

10%대(이하 닐슨코리아) 시청률을 기록 중인 tvN '빈센조'에서 악덕기업 바벨그룹의 회장으로 등장한다. 형이면서 '악역 끝판왕'인 옥택연의 충신으로 남을지, 뒤통수를 치는 배신자가 될지 시청자 의견을 엇갈리게 한다. 광기와 비굴함을 한순간에 오가는 연기로 좀처럼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며 호평 받고 있다.

2012년 15살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데뷔해 벌써 9년차 연기자다. 주말드라마(넝쿨째 들어온 당신), 사극(구르미 그린 달빛), 로맨스(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뮤지컬(썸씽 로튼) 등 다양한 경험을 거쳐 탄탄한 연기력을 갖췄다. 현재까지 24편의 작품에 주·조연으로 참여하면서 인지도를 착실하게 높이고 있다.

●나인우…위기를 기회로!

그야말로 '위기의 남자'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차한 지수를 대신해 KBS 2TV '달이 뜨는 강' 주인공으로 뒤늦게 투입됐다. 고구려 설화 속 온달을 실감나게 연기해 우려와 비판 여론을 단번에 뒤집었다. "처음부터 주인공인 것 같다"는 호평에 힘입어 드라마가 8%대의 낮지 않은 시청률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다.

2015년 영화 '스물'로 데뷔한 이후 작년까지 10여편의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좀처럼 주역으로 올라서지는 못했다. 최근 각종 드라마 화제성 순위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등 안방극장 주연의 입지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김영대…청춘로맨스 주역 '우뚝'

27일 29.2%까지 시청률이 치솟은 SBS '펜트하우스2'에서 '젊은 피'의 주축을 담당한다. 어른들의 세계 못지않게 치열한 청아예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다. 로맨스를 이어가던 유진의 딸 김현수가 살아 돌아오면서 아버지인 엄기준을 향한 복수의 칼날도 갈고 있다.

185cm의 큰 키와 날카로운 외모가 시청자 시선을 잡아끈 비결로 통한다. '전지적 짝사랑 시점' '오피스워치' 등 인기 웹 드라마를 통해 일찌감치 1020세대 시청자의 눈도장을 찍었다. 2019년 MBC '어쩌다 발견한 하루' 이후 연달아 고등학생 역할을 소화한 덕분에 청춘로맨스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글로벌 행보 윤여정, 보폭 넓히나?

애플TV플러스 '파친코' 여주인공
수 휴 총괄PD의 차기작도 기대감

배우 윤여정의 글로벌 행보가 주목된다. 영화 '미나리'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그는 최근 또 다른 해외 드라마에 참여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에 관련된 할리우드 유력 스튜디오 소속 스태프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윤여정의 활동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여정은 미국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의 주연으로 나섰다. 미국 이민 한인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미나리'로 미국의 다수 영화비평가협회가 주는 여우조연상 등 성과를 얻은 윤여정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이어지는 재일동포들의 삶을 그린 '파친코'를 신작으로 택했다. 1월 말 캐나다 밴쿠버로 날아가 촬영한 그는 15일 귀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해 왔다.

눈길을 모으는 것은 '파친코'의 대본을 쓴 수 휴 총괄프로듀서가 할리우드 유력 제작사 유니버설스튜디오그룹 소속이라는 점이다. 3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유니버설스튜디오그룹은 수 휴 프로듀서를 통해 아시아와 관련한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다.



윤여정

한국계 미국인인 수 휴 프로듀서가 총괄하게 될 아시아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파친코'를 매개로 윤여정과 새롭게 인연을 맺음으로써 향후 그의 해외 행보를 주목하게 한다. 특히 윤여정은 1970년대 미국에서 거주한 경험으로 영어 소통 능력을 지녔고, 영화 '미나리'로 해외에서 이미 상당한 인지도를 쌓아 앞으로 펼칠 활동과 관련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윤여정이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26일 미국 LA에서 열리는 가운데 그의 미국행 여부도 관심을 끈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올해 시상식을 정상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미나리'의 수입사 판씨네마 관계자는 30일 "윤여정 등 '미나리' 주역들의 시상식 참석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4월 군입대 백현, 더블 밀리언셀러 도전

미니음반 '밤비' 사전 주문량만 83만
군 입대 전 '100만장 돌파' 무난할듯

'더블 밀리언셀러 도전!'

지난해 100만장 이상 음반을 판매한 그룹은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8개 팀(명)이다. 그 가운데 그룹 엑소의 백현은 유일한 솔로가수로 힘을 발휘했다. 탄탄한 글로벌 팬덤과 음반 파워를 지닌 백현이 4월 군 입대에 앞서 내놓는 새 앨범으로 또다시 기록에 도전한다. 이미 그 예고 시점부터 사전 주문량 83만3392장(29일 기준)을 넘겨 밀리언셀러의 지위를 무난히 얻을 전망이다.

백현은 30일 세 번째 미니음반 '밤비'(Bambi)의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른 살에, 군 입대 전 마지막으로 엑소엘(팬클럽 이름)에게 드리는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성적으로)되레 선물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면서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백현은 지난해 5월 두 번째 미니음반 '딜라이트'(Delight)로 음반 판매고 100만장을 돌파했다. 솔로가수의 앨범으로서는 2001년 김건모 7집 이후 19년 만이다. 그룹 엑소의 멤버로도 2013년 정규 1집을 통해 12년 만에 밀리언셀러가 됐다. 그룹 및 솔로 앨범을 모두 밀리언셀러에 올리기는 서태지 이후 처음이다. 이번 앨범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엑소 백현

이날 백현은 담담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다. "맞춤 곡"이라는 설명도 이를 말해준다. 그는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음역대와 리듬이어서 녹음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처음 들었을 때 훅이 정말 강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머릿속 모든 아이디어를 쥐어짜냈다.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다"고도 했다.

모두 6곡을 수록한 앨범의 타이틀곡은 동명의 '밤비'다. 동화처럼 성숙한 사랑의 이야기를 표현하려 '밤에 내린 비'라는 의미를 담아 디즈니 동화 속 사슴 캐릭터도 차용했다. 그는 "두 가지 의미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 매력적인 것 같고, 발음이나 목소리톤도 다르게 표현하려 신경 썼다"며 "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느낌이다. 조금 힘을 빼고 극한의 섹시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한류스타 하지원, K드라마의 세계 담는다

'드라마월드'서 대니얼 대 킴 등과 호흡
김치 싸대기 등 장면 패러디 재미 두배

'원조 한류스타' 하지원이 독특한 도전을 펼친다. 4월2일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케이블채널 라이프타임 '드라마월드'의 주연으로 나서 '케이(K)드라마'의 세계를 색다른 시각으로 그린다. 대니얼 대 킴, 리브 휴슨 등 할리우드 배우들과 호흡해 2년여 공백의 아쉬움도 말끔히 지운다.

'드라마월드'는 미국 소녀 클레어(리브 휴슨)가 한국드라마 속으로 빨려 들어가 주인공들의 운명을 뒤바꾸는 과정을 코믹하게 담는다. 하지원은 해당 드라마의 주연으로 등장한다. 정의로운 형사로 사건을 해결해가면서 화려한 액션을 펼치고, 가슴 두근거리는 로맨스도 선보인다. '케이드라마'에서 빠질 수 없는 다양한 흥미 요소를 동시에 펼치는 셈이다.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대사는 영어로 풀어낸다.

하지원은 한국드라마를 소재로 삼은 신선한 시도에 출연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열혈 팬이라 밝혀온 크리스 마틴 감독과, 제작자이자 주인공인 션 리차드의 오랜 섭외 러브콜도 힘을 보탰다. 첫 방송일에는 온라인 제작발표회에도 참석해 2년 만에 시청자를 만나는 설렘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편 '드라마월드'는 김치로 뺨을 내려치는 '김치 싸대기' 등 시청자에 익숙한 국내 드라마 장면들을 패러디해 재미를 더한다. 2016년 시즌1의 인기를 발판삼아 13부작으로 늘었다. 미국의 써드컬처콘텐트와 한국의 래몽래인과 에이앤이네트웍스가 공동제작·투자하며 합작한 작품이다. 한국의 티빙, 동남아시아의 아이치이, 일본의 유넥스트 등 다양한 국가의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동시 공개된다.



케이블채널 라이프타임 '드라마월드'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방탄소년단 "아시아계 향한 증오 멈춰라"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아시아계 혐오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30일 SNS를 통해 2월 미국에서 한인 등 6명의 아시아계를 포함해 8명이 희생된 총격 사건에 대해 "슬픔과 함께 진심으로 분노를 느낀다"면서 "인종차별과 폭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도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한 기억이 있다. 길을 걷다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듣고, 외모를 비하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아시아인이 왜 영어를 하느냐는 말도 들었다"면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건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를 멈추라'는 뜻의 'StopAAPIHate' 해시태그를 달았다.

브레이브걸스 제작자, 사옥 매각 수십억 시세차익



브레이브걸스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그룹 브레이브걸스의 제작자가 사옥을 매각하며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브레이브걸스의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이끄는 작곡가 용감한 형제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옥을 2월 69억8000만원에 매각했다. 2013년 6월 13억8000만원에 땅를 매입해 사옥을 신축한 이들이 8년 만에 이를 되팔아 40여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송해, 5월 7일 비대면 토크 콘서트



송해

국내 최고령 진행자인 방송인 송해(94)가 토크 콘서트를 연다. 30일 공연을 주최하는 지니픽과 월드케이팝센터는 "5월7일 비대면 토크 콘서트 '송해의 인생티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2030세대부터 인생 고민이 많은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시청자의 사연을 함께 풀어가는 시간을 갖는다. 송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시청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KBS 1TV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있다.

마마무, RBW와 재계약…해체 없이 활동



마마무

소속사 RBW와 전속계약 만료를 앞둔 4인조 걸그룹 마마무가 해체 없이 활동을 이어간다. 30일 RBW는 "앞서 재계약을 맺은 솔라, 문별에 이어 화사도 최근 재계약을 체결했다. 남은 멤버인 휘인과도 심도 깊게 논의 중에 있다"며 "마마무의 해체는 없다"고 강조했다. 데뷔 7년차인 그룹은 올해 재계약을 앞두고 다각도로 논의해왔다. 마마무는 2014년 디지털 싱글 '행복하지 마'로 데뷔해 '음오아예' '넌 이즈 뭔들' '데칼코마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등의 히트곡을 내놓으면서 케이팝 걸그룹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100억 횡령 당한 박수홍 응원 댓글 이어져



박수홍

개그맨 박수홍이 최근 매니저인 친형으로부터 30년간 100억 원이 넘는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횡령 당한 사실을 밝힌 가운데, 그를 향한 응원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절친한 개그맨 후배인 손헌수는 30일 개인 SNS를 통해 "박수홍이 부모님 걱정 때문에 바보처럼 혼자 힘들어하며 체중이 15kg이나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최후의 발악으로 악성 루머로 이미지 흠집을 내려 할 것"이라며 "박수홍에게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박수홍은 가족사를 밝힌 직후인 이날에도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